

내일

기업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세상



2019 04 Vol. 528

'아지오' 수제화를 만드는 구두 장인들

Contents



테마이야기:
장애 구분 없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오늘을 만드는 사람들

- 06 **따뜻한 말 한마디**
대통령의 구두 '아지오' 유석영 대표
- 10 **맞춤 솔루션**
장애인 취업과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들
- 14 **인 스토리**
장애인 맞춤훈련으로
IT 전문가가 된 홍영기 님




노동 현장과 정책 이야기
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 18 **중장년 희망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희망 알림이
김남자 님
- 22 **청년 불패**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 성공, 김영훈 님
'K-Move'로 시작한 해외취업, 김한겸 님
- 26 **명장의 힘**
엠피닉스(주) 강상도 대표의 최고를 향한 여정
- 30 **정책 돋보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 34 **정책 수첩**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
- 38 **잡툰**
직장 동료와의 현명한 SNS 사용법
- 40 **고용노동 뉴스**



상생협력, 가치창출,
미래성장 이야기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 46 **같이의 가치**
경험에 전문성을 더한 돌봄, (주)동부케어
- 50 **해피 투게더**
변화를 이끈 합심의 중요성
(주)아성플라스틱벨브
- 54 **하우투 워라벨**
소통하는 창의적 사내 복지, 메디포스트(주)
- 58 **노사형통**
노조협의회를 통해 한 걸음씩 앞으로, (주)정석케미칼
- 62 **일자리 가이드**
상반기 국내 취업박람회
- 64 **내일 직업 사전**
반려동물분야 新직업
- 68 **SOS 고민 상담소**
직장 내 성희롱 대처법 外




여가생활 이야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 70 **옛 직업을 찾아서**
인연을 연결하는 사람들, 전화교환수
- 72 **직장인 에너지 충전소**
벚꽃과 함께 즐길 문화 콘텐츠
- 74 **동의業보감**
현대인의 만성 질병 VDT 증후군에 대해
- 76 **스마트 재테크**
똑똑하게 아껴 쓰는 잔테크 전성시대
- 78 **내일스타그램**
사무실에서 자라는 동료들 소개합니다
- 82 **독자 마당**

고용노동부 소식지 2019 4월호 <내일>
 통권 강남 라00389(통권 528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이재갑 편집위원장 김덕호(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77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com
 제작 큐라인(02-2279-2209) www.qline.co.kr

독자 맞춤 칼럼 이럴 땐, 이렇게 읽어보세요!



내 '일'을 찾고 싶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은 사업주라면?

'**맞춤 솔루션**'을 추천합니다.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니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몸담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다면?

'**명장의 힘**'에서 힌트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동네의 고장 난 TV와 라디오를 고쳐주던 산골 소년이 초소형 광학렌즈 분야의 기능 한국인으로 거듭난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절약의 의지는
있으나 방법을 몰라
고민이라면?

'**스마트 재테크**' 칼럼에서 소개하는 '잔테크'에 주목해보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작은 돈부터 아끼는 습관을 들여 티끌 모아 태산 만드는 실용 노하우를 전합니다.



2019년 4월 이야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바야흐로 봄, 별 좋은 날 길을 걷노라면
연두색 이파리와 노랑고 빨간 꽃잎들이 시선을 붙듭니다.

씩씩하게 자라는 풀과 꽃 사이, 어느 풀 한 포기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느다란 줄기 끝에 꽃봉오리를 하나 매단 채 봄바람에 흔들리는 풀.
저러다 바람에 꺾이면 어쩌나 싶어 부목을 하나 대주었더니,
얼마 후 꽃을 활짝 피웠네요.

앞만 보고 바빠 걸어가던 사람들도 잠시 멈춰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봄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돌아보면 어떨까요?
힘이 부족해서, 건거나 보거나 말하는 것이 불편해서
꿈을 키우는 과정이 더욱 고단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관심과 도움이 더해진다면, 꿈을 향한 여정이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월간 <내일>은 장애를 딛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가느다란 가지에 부목을 대주는 것처럼,
이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대통령의 구두 '아지오'
유석영 대표,

편견을 없애면
솜씨가 보입니다



'아지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구두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서 아지오란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낯은 구두에 대한 기사를 떠올려보길 권합니다. 유석영 대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조금 더 밝은 내일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의 애정 어린 메시지를 경청해주세요.

글 권주희 / 사진 스튜디오



세상의 편견에
감히지 마세요

—> 지난 2010년 처음 아지오를 만들었을 때 여섯 명의 청각장애인 구두 장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청각에만 불편이 있을 뿐, 솜씨는 비장애인 못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선은 조금 다가왔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이라 혹시 품질이 낮은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길 듣기도 했지요. 그런 편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성을 들여 구두를 만들어 나갔고 편견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실 제품력 하나로 승부하기에는 유통이나 판로 확보가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낯은 구두를 신고 계신 사진이 유명세를 타면서 아지오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롭게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에 감했다면 아지오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애는 불편일 뿐,
불가능이 아닙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불편할 뿐, 그 외 부분은 비장애인과 동일합니다. 장애는 불편이지 불가능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은 취업할 때 자신의 능력과 선호를 먼저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업종에 관심이 있는지 스스로를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점만을 고려하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한 일에 애정을 가지고 오래도록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일을 선택할 때 유일한 기준은 자신의 '적성'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잘하게 됩니다. 즐기게 되니 계속하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으며 직업은 점점 다양해집니다. 없어지는 직업도 있고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도전하지 못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빅데이터를 연구하고 독창적인 예술을 선보이는 일, 장애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래를 고민하는 장애인들에게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차근히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회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사회의 지원과 보호에 의지하며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발끝만 바라보면 당장 몇 걸음만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곳곳으로 시선을 펼치면
저 멀리 희망이 보입니다.”



**한 가지 장애로
전체를
판단하지 마세요**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장애로 그 사람의 모든 걸 판단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장애인들이 가진 불편함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처음 업무가 주어지면 그 일에 대해 온전히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습득하고 나서의 업무 성과는 때론 비장애인을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사용자를 고용할 때 얼마나 일을 빨리 잘할 수 있는가를 고려합니다. 그래야 회사의 성과가 높아지고 이익도 커지니 말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성이란 부분도 생각해볼 권합니다. 조금 느리게 배우지만 숙련되어 잘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초반의 속도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과 노동의
중심은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 하나, 고용과 노동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성과나 이익보다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게 아닐지요? 저는 노동자로서도 일해 보았고 현재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양쪽을 모두 경험했는데,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 창업보다는 관리와 유지가 더 중요하단 걸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회사와 함께 같은 꿈을 꾸는 직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100인 이상의 사용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법이 정한 만큼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이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결하지 말고 장애인을 고용해 함께 더 큰 내일을 꿈꾸었으면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데 아지오를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길 바랍니다.

장애를 넘어 행복한 일터 만들기

장애인의 취업
준비생과 사업주
모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노동의 기회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지만, 때로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장애인 취업준비생은 원하는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한편 사업주는 장애인 노동자를 위해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를 위해, 예비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취업과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다채로운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 전수아



취업 준비의 종합선물세트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Q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란?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회사생활 적응을 위해 진로 탐색부터 취업 알선까지 단계별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데요, 69세 이상의 장애인이라도 적극적인 취업 의욕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참여 가능합니다.



Q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프로그램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입니다. 참가자는 전문 상담원과 상담, 심리검사 및 직업평가를 진행한 다음, 결과를 토대로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 활동 계획을 세웁니다. 2단계는 직업능력 향상 과정입니다. 최대 24개월간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요, 훈련은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진행됩니다. 3단계는 집중 취업 알선 과정으로, 참가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면접을 준비합니다. 면접 시 기관 담당자가 동행하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취업 후에도 회사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취업 지원금

1단계	2단계	3단계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 시 5만 원 또는 10만 원 추가 지원	훈련참여수당 1일 18,000원, 최대 284,000원 지원	취업 후 12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원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기르는
맞춤훈련

Q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와 맞춤훈련은 어떻게 다른가요?

맞춤훈련은 기업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교과과정 설계부터 훈련생 선발, 전문적인 훈련과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입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가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과정이라면, 맞춤훈련은 어느 정도 진로를 정한 참가자들이 취업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전문지식을 기르는 데 특화돼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맞춤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인 맞춤훈련센터와 기업이 연계해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기간을 정합니다. 그다음 훈련 및 직무에 적합한 참가자를 선발합니다. 선발된 맞춤훈련생들은 기업체 직무과정에 따라 훈련을 받고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학생들은 기업에 채용될 수도 있습니다. 수료 후 1년간 후속지원을 받는데, 이때 미취업 훈련생은 구직 상담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훈련 전공 외의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양사회성 프로그램

이미지 메이킹, 직장 예절, 긍정 정서, 스피치, 팀워크



신체능력향상 프로그램

휘트니스, 요가, 실내골프, G/X, 트레킹



심리재활 프로그램

임상미술치료, 코칭, 심리상담(집단 및 개인)



장애인과 사업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Q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은 장애인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 또는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는 기준* 충족 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편의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근거)의 설계와 설치 또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0만 원에 더해 초과금액의 2/3(약 66%)를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재택근무 중증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는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 구입비로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장애근로자 1명당 300만 원 한도)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이 경우 장애인 근로자 수가 최소 20명 이상

Q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어떤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주는 초과 고용 인원 1인당 30~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지원자들과 고용 기회를 넓히고 싶은 사업주들이라면,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 제도에 힘입어 뜻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정당한 노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세상, 고용노동부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장애를 넘어 IT 전문가라는 꿈을 향해 성큼성큼

맞춤훈련으로
IT 기업 취업에 성공한
홍영기 님

주경야독하는 새내기 IT 전문가

홍영기 씨는 삼성SDS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오픈핸즈 (IT 서비스 분야)’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곳에서 홍영기 씨는 삼성SDS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품질 테스트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입사 6개월 차 새내기인 그는 하루하루 배우는 자세로 업무를 익혀나가고 있지요. 아울러 CSTS(소프트웨어 테스트 자격증) 취득을 위해 주경야독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팀 동료들과 스터디도 합니다.

“대학교와 맞춤훈련센터에서 개발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어요. 지금 하는 일이 큰 범위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이전에 꼭 필요한 업무이기에, 소프트웨어를 다각도로 테스트하려면 테스트 관련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개발자와 테스터, 둘 다 잘하고 싶어요.” 회사에 다니며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면서도 홍영기 씨의 표정은 마냥 밝았습니다. 아마도 노력의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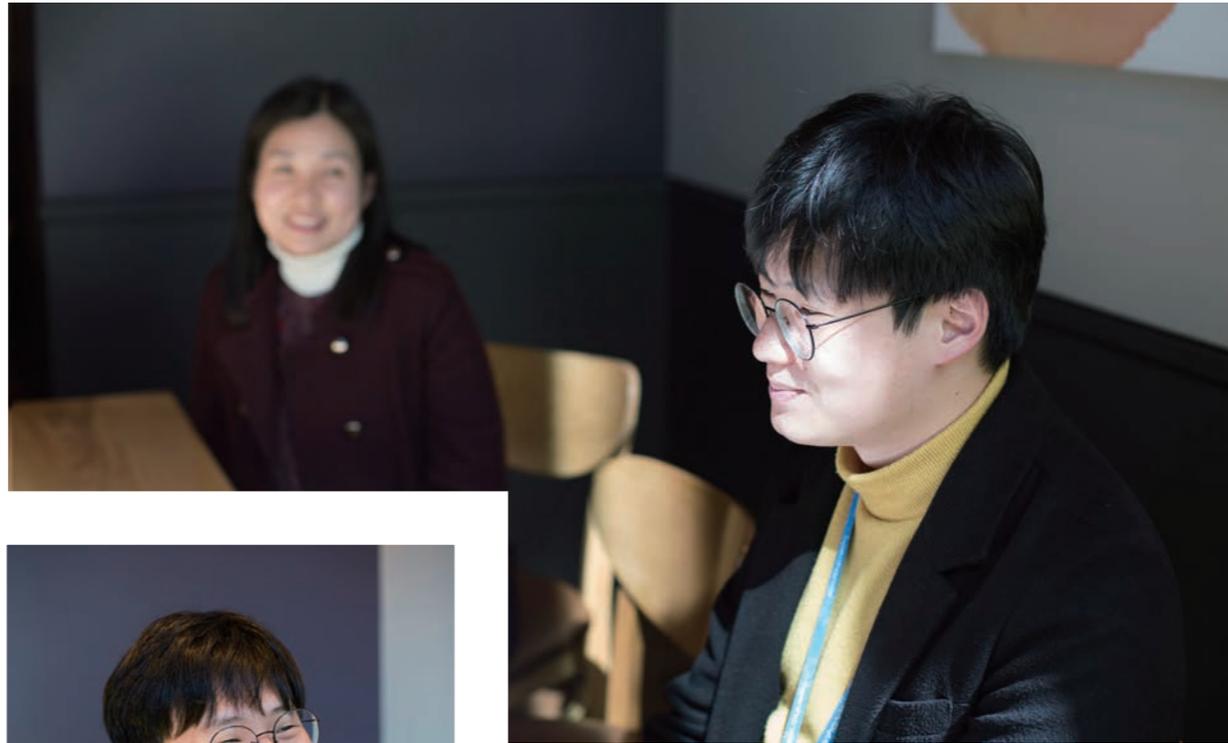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개발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런 노력파들 사이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맞춤훈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홍영기 씨도 ‘노력 장인’ 중 한 명인데요, 오늘도 씩씩하게 출근하는 그를 만났습니다.

글 전수아 / 사진 스튜디오



장애를 딛고 꿈을 향해서

홍영기 씨는 일곱 살이 되던 해, 자폐성장애 2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그는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움츠러드는 대신 어머니와 함께 꾸준히 재활을 위한 노력과, 태권도를 배우며 사회성을 길렀습니다. 덕분에 학교생활을 순조롭게 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서두루지 않고 진로 탐색에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저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선생님, 가족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연구했죠. 그러던 중 IT 개발자라는 직업이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또 해볼 만하다 싶었어요.”



청춘의 내비게이션이 된 취업성공패키지와 맞춤형연

홍영기 씨는 서일대학교 인터넷정보과에 입학해 개발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취업 준비를 시작하려던 3학년 때 우연히 캠퍼스 내에 붙은 공고문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를 만났습니다. 그길로 바로 신청해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을 밟던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의 맞춤형연 과정을 추천받았지요. 맞춤형연은 지원자의 자질과 역량을 고려해 기업체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훈련생을 직접 선발하는데요. 과정 수료 후에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맞춤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연 과정은 IT 개발자를 꿈꾸는 홍영기 씨에게 천군만마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맞춤훈련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참여한 훈련은 IT 대기업과 연계한 ‘SIAT 2.0’이었어요. 현장에서 쓰이는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지식 못지않게 좋았던 건 면접훈련이었어요. 발음과 발성, 시선처리 방법 등을 꼼꼼하게 코칭 받았지요. 덕분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희진 주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



도전에는 끝이 없다

홍영기 씨는 한 번도 자신의 장애가 꿈을 향한 여정에 걸림돌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자신을 믿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과 맞춤형훈련센터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영기 씨는 이들의 응원에 힘입어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좀 더 욕심을 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공부부를 더 하고 싶거든요. 나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세상이 마냥 낯설고 두려웠던 일곱 살의 소년에서 의욕 넘치는 개발자 청년으로 거듭난 그. 홍영기 씨가 걸어갈 새로운 내일에도 봄날 같은 꽃길의 펼쳐지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Mini Interview

“맞춤훈련이 있기에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더 큰 내일을 봅니다.”

맞춤훈련센터의 과정은 기업체에서 원하는 전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맞춤형 교과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접 준비 등의 취업에 필요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취업한 후에는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보고 만약 회사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재교육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우리 센터의 좋은 본이 되어 주고 있는 홍영기 씨처럼 자신의 꿈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서울맞춤훈련센터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사에서 기자로 인생 제2막을 펼치다

인터넷 신문사 시니어 기자로
재취업한 김남자님

카메라를 든 김남자 씨의 하루는 오늘도 분주합니다.
다양한 세상 소식을 빠르게 전하기 위해 매일 아침 취재에 나서지요.
기자로 새롭게 출발한 제2의 인생 앞에서 김남자 씨는 말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현재진행형의 청춘이라고요.

글 박재림 / 사진 스튜디오

미술교사에서
기자로의
새로운 도전

유난히 봄별이 따듯했던 3월의 어느 오후, 수원시 광고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신중년을 위한 건강한 생애경력설계’ 특강 현장. 카메라를 든 김남자 씨가 특강을 들으며 수첩에 꼼꼼히 메모를 작성합니다. 강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사로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온라인 매체의 선임기자로 활동 중인 김남자 씨는 이날 특강을 마치고 작성한 기사에서 ‘100세 시대에 중장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미술교사로 재직하다 만 60세에 정년을 맞았을 때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학교를 떠나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노인들을 위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김남자 씨는 인생 제2막을 힘차게 열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큰 맥락은 자신과 같은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으면 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언젠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김남자 씨는 중장년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며 차근차근히 취업을 준비해나갔습니다.





시니어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다

김남자 씨는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던 중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이주연 컨설턴트를 만났습니다. 이주연 컨설턴트가 광고노인복지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강연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신중년으로서 당당히 도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김남자 씨는 이주연 컨설턴트를 찾아갔습니다.

“취재하면서 들은 강의 내용이 인상 깊기도 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경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구직 정보와 프로그램, 강연을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다시 일하고 싶은 시니어들이 많지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하거든요. 조금 더 일찍 알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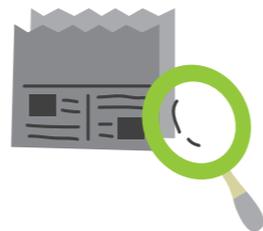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방문한 후 김남자 씨는 새로운 결심이 섰습니다. 노사발전재단에서 제공하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해 세상에 알리겠다는 생각이었죠.



운명처럼 다가온 새로운 직업

한 걸음씩 취업을 준비하던 중 2016년, 70세의 나이에 한 온라인 매체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신문사에서 시니어 기사를 뽑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남자 씨는 망설임 없이 지원을 했고 합격의 영광을 거머쥐었습니다.

김남자 씨가 일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사에는 65세에서 80세까지의 기자 1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각자의 활동을 공유하고 필요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김남자 씨에게 기자는 교사만큼이나 몸에 꼭 맞는 일이었습니다. 교사로 재직할 당시, 서류를 작성하면서 습득한 사실 위주의 간결한 글쓰기가 기사 작성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년 이후 시니어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알리는 일은 하면 할수록 보람이 커져만 갔습니다.



“경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방문한 후 컨설턴트님의 권유로 저의 재취업 이야기를 담아 ‘신중년 인생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에도 도전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사를 통해 노사발전재단의 다양한 소식들을 발 빠르게 전하고 싶습니다.”

김남자 씨는 현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활력 있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만 있다면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시니어의 도전에 날개를 달아 드릴 테니 말입니다.

강소기업 스타트업 현장실습으로 한 발 먼저 프로그래머가 되다



조기 취업 성공의 비결

한창 졸업 준비로 바빠야 할 대학교 4학년, 김영훈 씨는 학교 대신 회사로 출근합니다. 그는 현재 부산의 강소 스타트업에서 프로그래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이르게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디뎠던 힘도 법도 하건만, 김영훈 씨는 꿈꾸던 일을 하고 있다는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사실 제가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한 건 제대 후 복학한 2학년 때입니다. 우연히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주최한 ‘카네기 리더십 캠프’에 참가했는데, 1박 2일 동안의 강의가 매우 유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학일자리센터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대학일자리센터라면 해답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문을 두드렸고, 그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를 접하게 된 이후로 김영훈 씨는 많은 프로그램과 대외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1:1 개발 상담’인데,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컨설팅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대비 등 취업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한 끝에 김영훈 씨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청년친화 강소기업 서포터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역의 강소기업을 취재해 기사를 작성한 후 위크넷 ‘기업현장 탐방’ 섹션에 올리는 일을 맡게 되었죠. 김영훈 씨는 이때 처음으로 대기업 못지않게 다양한 제도와 혜택을 갖춘 강소기업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대외활동이로 자신감을 높이다

김영훈 씨는 여러 기업을 탐방하며 자신에게 맞는 강소기업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안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대외활동에 참여하며 소극적인 성격도 적극적으로 바꾸어나갔습니다. 그중에서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학일자리센터가 주관한 ‘시너지톤’이라는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무박 2일간 다른 학교 대학생들과 함께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사업 타당성을 조사한 후 발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 무대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구직자 혼자서는 알기 어려운 양질의 취업정보를 제공해줍니다. 또한 구직자의 적성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맞춤 솔루션을 추천해주시죠. 특히 구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히 배려해주셔서 든든한 지원군이 항상 제 곁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영훈 씨는 4학년 1학기 때부터 지역 강소 스타트업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졸업도 하기 전에 현재의 기업에 스카우트되어 프로그래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있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대학일자리센터의 문을 두드려보라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선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김영훈 님이 말하는 취업 성공을 위한 꿀팁!



“취업 성공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지식만큼 중요한 게 경험이 아닐까요? 높은 학점만큼이나 대외활동에도 신경 써주세요. 다양한 기업을 탐방하고, 서로 교류하며 관계를 쌓아간다면 강의실에서는 찾지 못한 숨겨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실습을 통해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하다보면 시야도 넓어지고 취업에 필요한 구체적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답니다.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다양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영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참여
- 와이즈유(영산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4학년
-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한 활발한 프로그램과 대외활동 참여로 지역 강소 스타트업 조기 취업 성공

‘K-Move’의 언어 교육과 단계별 취업 지원으로 베트남에서 꿈을 펼치다

베트남, 여행지에서 일터로 변신하다

베트남에서 제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김한겸 씨는 매일 아침 출근해 현지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여기가 내가 정말 일하고 싶었던 곳, 베트남이구나!’ 하는 실감을 하곤 합니다. 막연히 해외취업이라는 꿈을 꾸던 시절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꿈을 이룬 오늘이 신기하게만 느껴지곤 합니다. 그는 대학 시절 동남아를 여행하며 꼭 베트남에서 일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2의 고향처럼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죠.

“나와 닮은 이곳에서 살아보자, 역동적인 나라에서 꿈을 펼쳐보자!”라는 결심이 선 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의 일입니다. 곧장 해외취업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런 경력도 없고, 베트남어도 하지 못했던 김한겸 씨에게 해외취업은 생각보다 높은 벽으로 다가왔습니다. 열정만 넘치던 그에게 손을 내밀어준 곳은 바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K-Move’였지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살펴보다 K-Move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체계화된 시스템 안에서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고, 취업과 관련한 실무 교육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지요. 더군다나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맞춤형 취업 알선, 현지 적응 지원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기에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막대한 언어 격차이려 극복

6개월간의 현지 연수 끝에 베트남어 중급 수준에 도달한 김한겸 씨는 본격적으로 구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영어와 베트남어를 모두 사용하는 외국계 회사나 현지화가 잘 되어있는 한국 제조 기업을 염두에 두었죠. 베트남은 제조 기반 노동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 매력적인 일자리가 넘쳐났습니다. 제조업으로 직종을 정한 후에도 K-Move의 맞춤형 취업 지원은 계속되었습니다. 김한겸 씨가 원하는 직무와 연봉은 물론, 취업에 유리한 지역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면접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해외취업을 꿈꾸던 당시에만 해도 미래의 제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K-Move의 맞춤형 언어 교육과 단계별 취업 지원이 없었다면 꿈을 이루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지도 모를 일이지요.”

김한겸 씨는 더 많은 청년이 K-Move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도전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전도 멈추지 않을 거라며 웃음 짓습니다.



김한겸 님이 말하는 취업 성공을 위한 꿀팁!



언어의 장벽 앞에 포기하지 마세요

해외취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언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곤 합니다. 외국어를 잘 해야 해외취업에도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K-Move 프로그램에 도전하면서 저 역시 처음 베트남어를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집중 교육 덕분에 실력을 일취월장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언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K-Move가 당신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테니까요.



- 맞춤형 직무 교육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K-Move 스킴 수료
- 베트남 동화화성 비나 제조관리 분야 취업 성공

초소형 광학렌즈 전문 제조 기업 앰피닉스의 강상도 대표는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해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계가 좋아 동네의 고장 난 TV와 라디오를 고쳐주던 산골 소년은, 지금 글로벌 브랜드를 이끄는 중소기업 CEO가 되어 또 다른 ‘산골 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 임지영 / 사진 스튜디오

기계가 좋아 걸어온 외길,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다

마이크로 광학부품 제조사
앰피닉스(주) 강상도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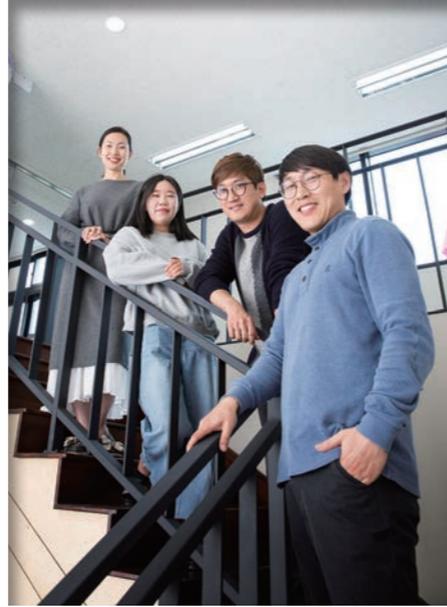
제144호
기능한국인
KOREAN MASTER TECHNICIAN
2019년 2월 기능한국인
앰피닉스(주) 대표이사 강상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유일한 원칙, 기본에 충실하자

“기계를 만지는 게 어릴 적 유일한 소일거리였습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죠.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고요.” 올해 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앰피닉스의 강상도 대표가 멋쩍게 웃으며 말합니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겸손해하지만, 그 미소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배어 있습니다. 광학렌즈, 그리고 1mm 이하 유리 마이크로렌즈 분야에서 ‘앰피닉스’는 일본의 업체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유리광학 부품 시장의 글로벌 강소기업 경영인으로 우뚝 선 그가 정립한 경영 원칙은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기술은 단시간에 얻을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오랜 시간을 공들인 사람만이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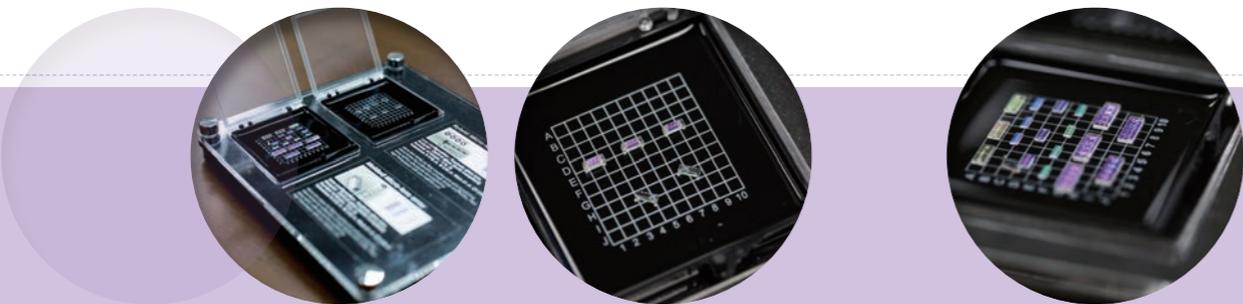
강상도 대표는 50가구가 전부인 전북 장수군의 두메산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자부품이나 기계에 관심이 많아 초등학생 때 이미 모형 항공기나 라디오를 조립할 줄 알았습니다. 주말이면 마을 할머니들의 고장 난 TV나 가전제품을 고치기 일쑤였고요. 기계공업고등학교 기계과로의 진학은 정해진 운명이나 다름없었던 셈입니다. 실습복을 입고 공장에서 공작기계로 제품을 가공하는 수업이 강 대표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현장실습을 경험하며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했고 선배의 도움으로 일본의 초정밀 가공기술을 현지 방문해 체험하고 대학원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당시는 인공위성 카메라 기술이 일본에서 각광받던 때예요. 일본의 초정밀 가공 권위자인 난바이치 교수님 연구실을 방문해 최신의 초정밀 가공과 금형설계를 광학 제품에 응용하는 앞선 기술을 보고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렌즈 설계와 제작에 적용할 수 있는 상업적 기술을 익힌 강 대표는 대학원 졸업 후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대기업의 높은 연봉보다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그에겐 더 중요했습니다. 일본에서 도입된 초정밀 광학렌즈 제조가 국내에서는 걸음마 단계에 있던 시기, 관련 가공설비 도입과 셋업을 전담한 강 대표는 2년여의 연구 개발을 거쳐 가공과 금형설계 기술을 모두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강 대표는 창업에 대한 꿈을 서서히 키워 나갔습니다.



미래의 엔지니어들에게
위한 초석 놓을 것

현재 엠피닉스는 생산성 증대와 공정 원가절감 기술에 주력한 결과, 일본 회사가 15년간 독점해왔던 1mm 이하 크기의 유리 마이크로렌즈 시장에도 진출, 지금은 회사의 주력 상품이 되었습니다. 순도 100%의 국내 기술로 일본의 독점 시장을 양분하고 엠피닉스를 글로벌 브랜드로 우뚝 세운 강상도 대표. 그에겐 아직 이루고픈 꿈이 남아 있습니다. “제 모교, 그리고 직원들의 모교에서 오늘도 꿈을 향해 매진하고 있을 숱한 미래의 엔지니어들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제 미래가 될지도 모르죠. 저 또한 꿈의 지원자들 덕분에 지금 여기에서 있는 것이니까요.” 강상도 대표가 지금 꾸는 꿈은 그가 과거에 바랐던 꿈처럼 머지않은 내일 꼭 이뤄질 것임을 믿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경제대국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사갈등이라는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에 대한 현명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글 권주희

#1

ILO 설립 배경과 의의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입니다. ILO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해온 노동자 권리 침해, 빈부격차 심화와 이로 인한 사회갈등 등의 문제를 노사정 삼자주의(Tripartism) 정신에 입각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191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ILO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을 통해 “노동은 상품이 아니고,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인 진보에 필수적이며,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협한다”는 기본 이념을 확인했습니다.

#2

ILO 핵심협약의 중요성

ILO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채택하고 있는 189가지 협약 중에서 8가지를 선정해 핵심협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군 등 대우,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8가지인데요, 이 핵심협약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보편적 국제기준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협약의 기본 정신을 국내 법·제도에 구현함으로써 노동자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보호한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3

ILO 회원국의 의무

ILO에 가입하는 회원국은 핵심협약 비준 의무를 지게 되고, 187개 회원국 중 144개 국가가 8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고,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관련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관련 원칙	협약 상세	채택 연도	우리나라 비준 여부
결사의 자유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	1948	X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1949	X
강제노동 금지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1930	X
	제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	1957	X
균등 대우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	1951	1997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1958	1998
아동노동 금지	제138호 최저연령 협약	1973	1999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1999	2001

#4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ILO 회원국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1991년 우리나라가 ILO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국제적 외교무대에 당당히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노사관계법, 근로조건 등 한국의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림으로써 국내외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8년 동안 ILO 핵심협약 중 일부가 아직 비준이 되지 않고 이에 따라 국제연합(UN) 등으로부터 핵심협약 비준을 수차례 요청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자들의 기초적 권리를 보장하는 밑거름이자 우리나라의 노동권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5

통상 분야에서 대등한 협상력 발휘를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상황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16개 자유무역협정(FTA) 중 9개의 협정문에는 노동기본권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 정부에 지속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해왔고 정부의 조치가 미흡함을 이유로 지난해 말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통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나라가 핵심협약 비준을 대부분 완료한 교역 상대국들과 대등한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이 모든 노동 현안에 대한 만능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찾고 있으며 노동조합 설립·운영과 관련해 오랜 기간 노사 갈등을 촉발시켰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갈등 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및 청년 일자리 등을 해결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 국회, 노사 모두 손을 굳게 잡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6

미래를 열어가는 오늘의 해법을 위해

잠들어 있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폐업 도산 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

노동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소중하게 일하며 모아둔 퇴직금을 보호하고 자산관리에도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제도인데도, 혹시 그거 아시나요? 노동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계좌에 고스란히 쌓여 있는 퇴직연금이 무려 1,00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내 연금도 혹시?' 하는 의문이 드신다면,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주목해 보세요.

글 전수아



“
있는지도 몰랐던 ‘내 퇴직연금’,
잠들어 있는 퇴직금이 1,000억 원을 넘는다고요?
”

다녔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갑자기 문을 닫아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했을 때,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든 퇴직연금이 2017년 말 기준 4만 9,675개 계좌로 금액은 1,093억 원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지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퇴직금

(단위: 억 원)

구분	2015년 말	2016년 말	2017년 말
미청구 적립금	1,220	1,013	1,093
3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	195	270	301

“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퇴직연금 계좌를 찾아드립니다 ”

그동안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노동자에게 퇴직연금 계좌가 있음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당부하고 싶어도, 가입 노동자의 주소가 불분명해 실행해 옮기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지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퇴직연금 지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소 정보를 활용해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주소 정보에 대한 이용 승인을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와 모니터링을 더해 확실하게 해결해나가겠습니다 ”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 있음을 퇴직자가 인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나 퇴직연금사업자의 대면 창구에서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관련 팸플릿을 비치하고 팝업과 배너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사건을 처리할 때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퇴직연금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퇴직연금 취급 실적’에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항목을 신설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증가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것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리를 돌려주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계획입니다. 숨은 권리 찾기에 노동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 ‘통합연금포털’로 퇴직연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는 방법

-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접속 → 내 연금 조회(화면 중앙 하단) → 연금계약 정보
 - *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 * 회원 가입 후 퇴직연금 정보 최초 조회 시 약 5일이 소요됩니다. 이후부터는 매월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 퇴직연금 지급신청 서류 준비하기

- 퇴직 노동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방문 신청
 - *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방문 신청 시 체당금 확인통지서를 함께 제출
- 다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 폐업·도산 전 자신의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①원천징수영수증, ②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③퇴직급여 소송 관련 확정판결문 등 자신의 퇴직 전 급여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구체적인 퇴직급여 산출 및 지급이 가능





내일개발산업의 낄끼빠빠 SNS 사용법

그림 정민영



강원도 특별재난지역 고용 지원 관련 주요 기관장회의 개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 모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주요 기관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은 '특별재난지역 고용 지원·산업안전 적극 지원' 및 '3월 임시국회 고용노동 입법 성과' 등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6일,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 속초, 동해 등 5개 시·군의 피해 사업장을 하나하나 살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위한 고용 지원·산업안전 대책팀(강릉지청)을 구성하고, 지자체·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지방관서에서는 산불로 인해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와 안전장치 등이 손상된 사업장에 대해 재가동 시 철저히 사전점검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3월 국회를 통과한 '채용절차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5개 고용노동 법률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관련 부정청탁과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 법안이 금년 7월 시행인 만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에서도 채용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이재갑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이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원활한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원활한 집행과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3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되새기며, 일자리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역·업종·대상별 고용정책 추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르노삼성 협력업체 일자리지원단과 1차 회의 주재 및 르노삼성 노사대표 면담

노사가 대화와 양보로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1일 목요일 부산광역시를 방문해 ‘르노삼성 협력업체 일자리지원단’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어 르노삼성 노사대표를 면담했습니다.

먼저, 르노삼성 협력업체 일자리지원단 제1차 회의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C&S 국제물류센터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됐습니다. 이재갑 장관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부산고용노동청장,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부산시 미래산업국장, 르노삼성 협력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르노삼성 파업 등에 따른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표들을 격려하면서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자동차산업의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나기원 르노삼성 협력업체 협의회장 등 참가한 협력업체 대표들은 르노삼성 파업으로 인한 경영 및 고용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르노삼성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을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오늘 건의된 내용 중 먼저 지역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르노삼성 협력업체 일자리지원단’의 관계기관 합동 ‘정부지원제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해결”하고, “중앙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이재갑 장관은 르노삼성 부산공장을 방문해 노사를 각각 면담하고, 조속한 임금단체협약 타결과 생산물량 배정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먼저 르노삼성 노조 박종규 위원장과 간부들을 만나 “교섭 장기화와 생산물량 감소로 르노삼성 직원분들의 염려가 가장 크겠지만, 협력업체와 지역주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 입장에서는 아쉽고 부족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간 논의된 안들을 잘 정리해서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고 생산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재갑 장관은 르노삼성 도미닉 시노라 대표이사와 임원진을 만나 “임금단체협약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교섭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르노삼성 노동자들이 높은 숙련도와 성실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르노삼성에 생산물량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시행



▶ 2019. 3. 19.
▶ 문의: 청년고용기획과
용다솜 사무관(044-202-7493)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고,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한 것으로,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을 확정된 후, 청년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 120% 이하인 경우에 속하는 청년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생애 1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한 해 동안 총 8만 명의 취업 준비 청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2019년 제6차 작업환경실태조사 실시



▶ 2019. 3. 29.
▶ 문의: 화학사고예방과
김남균 사무관(044-202-7753)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4월부터 10월까지 18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6차 작업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작업환경실태조사는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파악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조사로, 1993년부터 5년마다 사업장의 일반 현황과 위험기계·기구 보유 현황, 화학물질 취급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조사와 같이 5인 이상 제조업은 전수 조사, 5인 미만 제조업과 비제조업은 표본 조사를 하는 한편, 제조업 중 화재·폭발 등의 중대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세부 업종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모두 조사합니다.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이 조사대상 사업장에 우편으로 조사표를 보내 미리 작성하도록 요청한 후 조사요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표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의 일반 현황, 위험기계·기구 및 유해 작업 현황, 화학물질 취급 현황 등을 조사표에 적어 놓고, 조사요원이 방문할 때 조사에 협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팀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 기간’인 4월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 열려



▶ 2019. 4. 1.
▶ 문의: 장애인고용과
유춘선 사무관(044-202-7485)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 기간’을 맞이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우선 4월 17일에는 장애인고용에 공로가 있는 사업주, 노동자, 업무유공자를 포상하는 ‘2019 장애인 고용촉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4월 22일과 23일에는 ‘제14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립니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작업 보조기기입니다. 박람회에는 다양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가 전시되며 누구나 참여해 직접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인식개선 퀴즈, 축하 공연 등 여러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이밖에도, 4월에서 5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정책토론회와 발달장애인 기능경기 지역별 대회,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 등 다양한 장애인 고용 및 인식개선 관련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실용적인 규제 운영을 위한 정부입증책임제 도입



▶ 2019. 4. 3.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병각 사무관(044-202-7065)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신산업·혁신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행정 규제 전반에 걸쳐 ‘정부입증책임제’를 전면 도입합니다. 정부입증책임제는 기업이 아닌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신설했습니다. 심의회는 고용,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등에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골고루 갖춘 민간 부문의 전문가를 과반으로 구성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작년에 기업에서 건의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의해 1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16건의 개선과제는 올해 안에 정비하되, 예산 소요 및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2020년까지 개선할 계획입니다. 규제가 있는 행정규칙 59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규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유의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엄마가 엄마를,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다

경험에 전문성을 더해
진심 담긴 돌봄을 실천하는 (주)동부케어

우리는 모두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던 아이가 자라서 노인이 된 부모를 돌보듯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초고령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돌봄이 점차 함께해야 할 사회적 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에서 장례까지의 새로운 돌봄 문화를 만들어가는 2018년 우수사회적기업 동부케어를 통해 우리 시대 돌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글 박향아 / 사진 스튜디오



‘같이해서 더 좋은 세상’을 꿈꾸다

흔히 장애인은 비장애인, 노인은 젊은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케어의 전략적 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고 동시에 돌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동부케어에서는 노인이 노인을, 엄마가 엄마를,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습니다. 노인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노인이고, 육아를 해본 사람이 워킹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죠. 이들의 가장 큰 경쟁력은 경험이고, 경험은 체계적인 교육을 만나 탁월한 전문성이 됩니다. 여기에 내가 겪어왔기에 알 수 있는 높은 이해도와 진정성이 더해지니, 서비스의 퀄리티와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죠.”

동부케어에는 560여 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시 근로자인 80여 명을 제외한 480여 명은 현장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보호사가 우리가 흔히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동부케어를 통해 경제적 활동을 하고 ‘같이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다

동부케어에 소속된 노인방문요양보호사들은 다른 노인을 돌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돌봄을 받는 이웃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전략적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노인방문요양보호사의 돌봄 서비스를 받는 한 어르신이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좋은 친구가 생겼다”는 후기를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세심하게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좋은 말동무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중증장애인 목욕서비스를 하는 한 장애인 보호사는 이 일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동과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돌봄 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나도 조금 더 노력하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눔과 행복이 경쟁력이 되는 세상을 향해

사회취약계층이라 불리는 노인,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과 일하는 동부케어는 이들이 ‘핸디캡’이 아닌 ‘경쟁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재들을 바탕으로 동부케어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며 고용 인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2009년 45명의 어르신과 함께 떠난 돌봄 여행은 2017년까지 12회째 진행됐습니다. 2013년 10월부터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100명에게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죠. 전략적 대표는 앞으로도 더불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겠노라고 약속합니다. “동부케어는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누군가의 관심과 배려를 받기보다는 서로의 관심과 배려를 나누고 실천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돌보는 사람도, 돌봄을 받는 사람도 행복한 삶. 동부케어가 그리고 있는 미래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이웃이 함께 미소 지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5를 향한 동부케어의 발걸음

2025년이면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세대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동부케어에서는 이때를 대비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방문 호스피스 서비스
연명치료에 비동의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삶을 유익하게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기능성 밑반찬 서비스
개개인의 병력,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성 밑반찬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동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병원 방문, 쇼핑 등의 외출에 동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돌봄 여행 서비스
보호자 없이 여행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의 고향 방문, 원하는 장소로의 여행에 동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긍정적인 동기 부여가 임금 체계 개편의 핵심

변화를 이끈 합심의 중요성 (주)아성플라스틱밸브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기업은 더 높이 비상하기도 하고 오히려 도태되기도 합니다. 아성플라스틱밸브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임금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직무 중심의 평가와 보상에 돌입했습니다. 더 큰 성장을 위한 첫 걸음을 뗀 아성플라스틱밸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봅니다.

글 박향아 / 사진 스튜디오

더 큰 성장을 위한 변화

아성플라스틱밸브는 1967년 설립된 이래 밸브 및 파이프, 이음관을 생산하며 국내 플라스틱 배관 분야의 발전을 이끌 어온 선도 기업입니다. 50여 명의 직원으로 출발한 기업은 현재 직원 250여 명, 매출액 500억 원의 탄탄한 내실을 자랑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바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력직과 신입직원의 이직률이 점점 높아지며 아성플라스틱밸브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경수 이사는 “우수한 인재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에게 그에 맞는 보상과 대우를 해주는 것은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위한 기본이라 판단했고, 평가와 보상 체계 개선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에 임금 및 평가 부문의 컨설팅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아성플라스틱밸브의 컨설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4년 컨설팅을 통해 임금제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였지만 직무가치가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해외 영업이나 금형 등의 특수 직무는 임금 수준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았고, 신입직원 채용을 위해 사원급의 연봉을 상승시키다 보니 부장급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성플라스틱밸브가 또 한 번의 컨설팅을 하게 된 이유인 셈이지요.





직급이 아닌 직무에 주목하다

이번 임금 체계 개편의 중점사항은 바로 직무 중심으로의 체계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아성플라스틱밸브는 사무직은 연봉제를, 생산직은 일급제를 적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에서는 이를 하나로 통합해 사무직과 생산직 모두에게 '직무급'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직급이 아닌 직무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기준과 원칙에 따른 임금 인상은 물론 평가와 승진제도 운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직무급을 바탕으로 한 임금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직무 분류 체계 확정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1인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단위와 레벨을 설정하고 직무별로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 분석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다음으로 경영진 회의를 통해 전문성, 의사소통, 의사결정, 직무영향, 관리책임 등 총 5개 항목을 직무 평가 요소로 도출했습니다. 이후 해당 직무별 전문지식을 갖춘 12명을 선정해 최종적으로 직무 등급을 확정했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우다

이번 임금 체계 개편에서 평가와 보상은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성플라스틱밸브는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는 연봉 인상 및 승진에, 성과평가는 성과급에 활용되게 함으로써 평가와 보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구축했습니다.

아성플라스틱밸브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 토대를 마련하고, 역량을 집중해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실행해나가며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아성플라스틱밸브의 직무 중심의 평가 및 보상 체계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탄탄하게 다져질 기대합니다.



“ 직무급은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제도지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직무 가치에 따른 임금 차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의 불만은 승진을 통해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

Mini Interview



평가에 대한 보상이 명확해졌다는 점. 이것이 임금 체계 개편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개편 이전에는 직원 입장에서 평가가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체감하기 어려웠거든요. 스스로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직원들 사이에서 차츰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의욕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분위기가 생겼죠.

이진아 대리(경영지원팀)



직장인들에게 '동기 부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회사의 성장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직무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도 계속해서 변화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개선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완성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재민 사원(경영지원팀)



회사의 제도가 모든 직원을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직원

들에게도 큰 자극이 됩니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허진환 사원(품질경영팀)

여성과 남성
모두 **공평**하게,

임원과 직원
모두 **공감**하게,

소통하는 창의적인
사내 복지 실현
메디포스트(주)

‘줄기세포 재생의료기술’을 개발·서비스하는 메디포스트는 ‘워라벨’이란 개념이 확산되기 전부터 일과 생활의 균형을 고민해온 기업입니다. 일찍이 정부가 권장하는 유연근무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해왔을 뿐 아니라, 단축근무제와 유급안식휴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직원들의 워라벨을 지켜왔습니다. 메디포스트의 워라벨 스토리 들어보실래요?

글·사진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블로그



워킹맘 CEO가 먼저 고민했던 워라벨

메디포스트는 임직원의 60%, 무엇보다 임원의 40%가 여성이라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는 국내 상장기업 중 극히 드문 경우인데요, 메디포스트 인사팀 김원경 팀장은 여성 임직원이 활약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데 ‘CEO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기획하더라도 경영자의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메디포스트는 CEO인 양윤선 대표님이 가장 주도적이었어요. 본인 자신이 사업과 살림 두 아이의 육아를 함께 해야 하는 워킹맘이었으니까요.”

육아와 일을 함께 해야 하는 고단함을 누구보

다 잘 알았던 양윤선 대표는 가정과 일의 양립을 돕는 제도를 하나씩 실천해나갔습니다. 임신과 육아를 고려해 업무시간을 잡도록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사내 수유실도 갖춰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환경을 하나씩 확대했습니다. 이는 여성 직원에게만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남성 직원에게도 자녀들의 양육 시기에 필요한 휴가를 적극적으로 쓰도록 권유했습니다. 아내의 출산이 임박하면 무조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일에 참여토록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은 메디포스트 직원들 사이에 신뢰로 자리 잡았습니다.



임직원 소통을 통해 확산되는 워라밸 문화

그럼에도 메디포스트는 새로운 제도를 기획하고 실행할 때마다 형평성을 헤치거나 역차별을 당하는 직원은 없는지 항상 점검한다고 합니다. 원칙도 세웠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는 차등 적용하되, 인사고과는 업무성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임직원 간의 허물 없는 대화를 통해 제도가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경영진이 결정한 제도라도 구성원 다수가 공감할 때까지 수차례의 토론과 설명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좋은 제도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오해를 없애고 이견을 좁혀서 결국 모든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직원이 목소리를 내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되어 돌아온다는 신뢰를 쌓아야 안정적이고 만족도 높은 워라밸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인사팀 김원겸 팀장의 생각입니다.



심신 건강 관리부터 시작하는 워라밸

메디포스트는 건강을 서비스하는 기업답게 직원의 건강 유지에 힘을 쏟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옥 내에 스포츠센터를 설치해 직원들이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가 하면 구내식당에서는 좋은 재료와 균형 잡힌 영양식을 제공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다 쉽게 운동에 접근하도록 만든 스포츠센터나 세계 맛집을 모아놓은 것처럼 트렌디한 구내식당 메뉴는 인증샷을 남기는 직원들이 여럿 있을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과 마음 건강까지 관리하도록 복리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급여와 별도로 연간 17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직원들은 이를 여가생활과 자기개발에 투자합니다. 단련된 몸과 멘탈을 가진 직원들의 업무 자세가 좋아지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벤처 붐을 이끈 창의력은 실 때 나왔다

메디포스트는 2011년부터 안식휴가제를 시행해왔습니다. 10년 근속 시 2개월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안식휴가제는 직원들의 건의에 따라 2017년 초부터는 5년 근속 시에도 1주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확대 운영되었습니다. 사실 잘 쉬고 온 직원이 더 큰 일을 해낸다는 게 양윤선 대표의 오랜 믿음입니다. 2000년, 1세대 벤처 붐을 일으키며 제대혈 분야를 개척한 그녀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필수인 벤처기업은 일과 휴식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앞선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지치지 않고 창의적인 발상을 해내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쓸데없이 남아있는 나쁜 야근을 없애고 확실한 리프레시 기회를 제공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메디포스트가 워라밸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메디포스트는 워라밸 제도 관련해 할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워라밸 공감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워라밸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직원의 건강한 삶에서 오는 만족과 창의성을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려는 메디포스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Mini Interview



스트레스를 받거나 슬럼프가 오면 친구들과 수다로 풀곤 했어요. 사람을 만나서 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느끼던 차에 책을 읽기 시작했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아낌없이 구해 읽으며 독서 습관을 들이는데 복지카드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카티스템영업팀 김다솜 사원



제가 생각하는 워라밸은 일에서 성취감을 얻으면서 가정도 행복하게 꾸리고 싶다는 희망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워라밸이야말로 인생의 장기 목표를 세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지원팀 이수진 사원

Work and Life Balance

노조협의회를 통해 한 걸음씩 앞으로

페인트의 정석을
노사문화에서도 꽃피우다
(주)정석케미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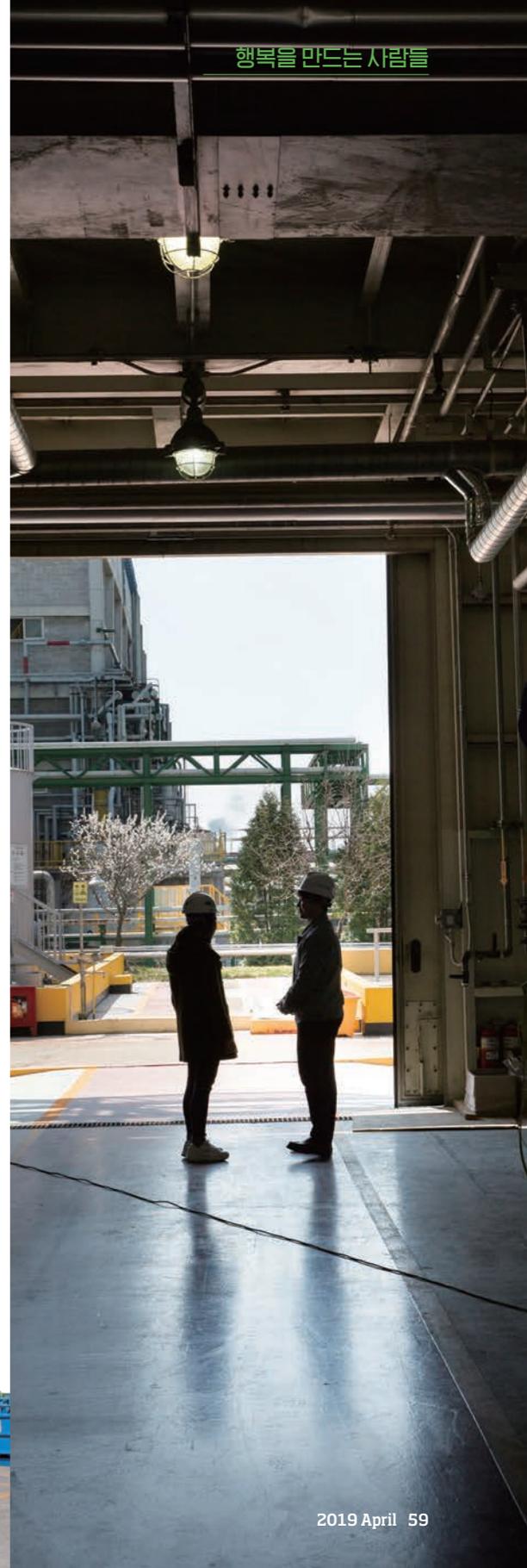


정석케미칼은 '페인트의 정석'이란 슬로건 하에 고품질 도료를 개발하는 전라북도 향토기업인데요, 최근에는 노조 협의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내 복지 제도를 구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간존중, 가치창조,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결과, 지난해 '2018년 노사문화 우수 기업 인증'을 획득하기도 한 정석케미칼을 소개합니다.

글 윤민지 / 사진 스튜디오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향토기업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을 꼽으라면 단연 정석케미칼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90년, 완주산업단지에 자리 잡은 후로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 대다수가 전라북도 출신이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길러내고자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터전인 완주군과 상생하기 위해 매년 결식아동·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합니다. 김용현 대표는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정석케미칼을 누구나 일하러 오고 싶은 회사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을 돌보는 것은 기업의 책임입니다. 특히 장학 사업은 정석케미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역 인재 양성에 꾸준히 힘을 쏟는 이유이지요."





직원이 곧 회사의 주인공

정석케미칼은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의 '20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을 직원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해 신뢰를 다지는 '투명경영'과 회사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조의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노조는 매달 월례회의와 연회 정기총회를 통해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공식화된 채널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석케미칼은 '전 직원이 함께 회사를 발전시키는 주역'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의 발전은 직원들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연간 2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리고, 모든 직원에게 해외 전시회 참가 기회를 부여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게 돕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사내 동아리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어학 공부, 석박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한편, 정석케미칼은 정기적으로 경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많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정석케미칼을 누구나 일하러 오고 싶은 회사로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소통으로 시작된 이심전심

외부 일정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식사한다는 김용현 대표는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송행택 노조위원장 또한 수시로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직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은 정석케미칼에게도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한정된 설비와 공간으로 인해 잔업이 불가피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한발씩 양보하고 업무변경, 시차출근, 업무대체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기보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변화에 동참하는 중입니다. 꾸준한 소통은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이어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정석케미칼의 목표는 '누구나 일하고 싶어 문을 두드리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한 노사 동행을 위해, 만족하지 않고 오늘 더 노력하는 정석케미칼의 치열한 발걸음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Mini Interview

다시 일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총무팀 최현진 과장



젊음의 패기로
노사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술연구소기술팀 김정수 연구원



정석케미칼에서 결혼 전까지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출산 후 재입사를 했어요. 우리 회사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편견 없이, 제가 다시 한 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죠. 또한 사내 복지를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도 우수하고 제품 품질도 좋은 우리 회사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입사 4년 차 직원으로서 더욱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에서 노사화합이 가장 잘 된다고 자부합니다. 더 나은 노사문화를 위해선 서로 많은 대화를 하고 의견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피'로서 젊은 직원들의 입장을 열심히 대변하고 싶어요.

제3회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박람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한국전력을 비롯해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종합 일자리박람회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국제뿌리산업전시회'와 연계해 뿌리기업과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등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할 인재들에게 채용 및 관련 산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뿌리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뿌리산업 중사 기업을 말합니다.

일시 2019년 4월 25일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주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

2019 취약계층 일자리박람회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라는 점을 바탕으로, 노숙인과 쪽방주민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박람회입니다. 이력서 작성과 증명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60여 개 민간기업이 참여해 상담 및 면접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결핵검진과 혈액검사 등의 건강검진과 정신상담, 미술치료를 병행해 취업 의지를 고취합니다.



일시 2019년 5월 13일 **장소** 서울광장
주최 서울특별시

제12회 청년 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 JOB 콘서트

일자리와 진로교육이 결합된 청년 일자리박람회로 청년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현장면접존에서는 우수강소기업 인사담당자와 1대1 면접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대기업공채상담존에서는 국내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참석해 유용한 지원 팁을 알려줍니다. 취업서포터존에서는 서류준비와 인적성검사 등 취업준비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컨설팅해줍니다.



일시 2019년 5월 16일 **장소**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6홀
주최 고양시,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

다채로운 일자리가 한 곳에 국내 취업박람회

의류와 소품, 가전제품이 한데 모인 백화점처럼 사회초년생부터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자까지 적성과 상황이 다양한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취업박람회인데요, 2019년 상반기 열릴 행사들을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

글 전수아

제14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우수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도전정신 가득한 인재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올해 행사에는 150여 개 기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 수많은 기업들이 채용관을 열고 기업 특성에 맞는 채용 정보를 제공하며 컨설팅관에서는 외국어 면접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채용설명회, 구직자에게 실용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취업특강도 열립니다.

일시 2019년 6월 4~5일 **장소** 서울 코엑스 3층 D홀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2019 부산광역시 일자리박람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박람회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재 15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채용 정보를 전합니다. 또한 기업정보관, 취업컨설팅관, 부대행사·홍보관 등을 운영해 심리상담 서비스와 직업상담사를 통한 취업상담 서비스, 이력서·면접 컨설팅, 직업심리검사 등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일시 2019년 5월 30일 **장소** 부산백스코제2전시장1층(4A~4C홀)
주최 부산광역시

2019 청주 채용박람회

청주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을 비롯한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청주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1대1 현장 면접과 구직자 맞춤 기업정보, 현장 매칭 컨설팅과 이미지 컨설팅을 제공하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프리랜서를 위한 특별 컨설팅도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이력서 사진 촬영 및 4차 산업 일자리 체험관 등 실용과 볼거리를 두루 갖춘 이벤트도 열립니다.

일시 2019년 5월 23일 **장소** 청주체육관
주최 청주시

동물과 사람의 건강하고 행복한 동거를 위해

반려동물분야 新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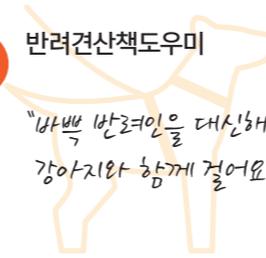
2017년 농림축산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네 집중에 한 집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의 증가와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요즘,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직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글 전수아(참고자료: 고용노동부 <미래가 온다 새로운 직업이 뜬다>, 교육부 <미래직업 가이드북>) / 사진 스튜디오



반려견산책도우미

"바쁜 반려인을 대신해
강아지와 함께 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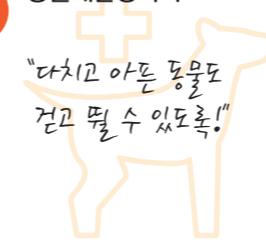


바쁜 현대인에게 반려견과의 여유로운 산책은 마음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반려견 도우미들이 일하느라 바쁜 반려인을 도와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돌봐주고 있지요. 이들을 ‘도그워커(Dog Walker)’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미 유망 직군으로 손꼽히며, 최근 서울 강북구 등 지자체에서 도그워커를 양성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물재활공학사

"다치고 아픈 동물도
견고 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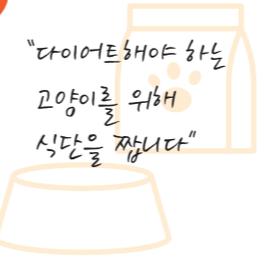


동물재활공학사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거나, 사고 등의 이유로 움직임이 불편한 동물에게 의족이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만들어주는 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등장, 전문 교육기관과 시장이 폭넓게 형성돼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동물 보조기구를 만드는 곳이 거의 없지만, 그에 비해 수요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보조기구 또는 관련 부품을 만드는 동물재활공학사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영양사

"다이어트해야 하는
고양이를 위해
식단을 짜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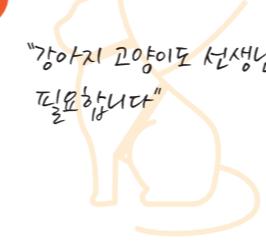


반려동물영양사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입맛을 고려한 음식을 만들고 반려동물의 영양 상태를 진단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동물이라도 종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와 요구량, 소화 방법이 다르며, 종이 같더라도 체중과 나이 등에 따라 식단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대신 충분한 역량을 갖추면, 사료 회사에 취업해 반려동물의 취향에 꼭 맞는 새로운 사료를 개발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며 과체중 반려묘, 반려견들을 위해 다이어트 식단을 짜주는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행동교정사

"강아지 고양이도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행동교정사는 동물의 복지를 존중하고 그 동물이 가진 특성을 지켜주면서, 반려인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심리 및 행동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지요.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는 사람



이철
동물재활공학사
(워크엔런 대표)



반려견들의 휠체어 아저씨

이철 대표에게는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휠체어 아저씨’입니다. 걷지 못하는 유기견을 위해 휠체어를 만들기 시작해, 유기견 보호소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반려인들에게 반려견용 휠체어를 만들어 선물하면서 입소문을 탄 것이지요.

휠체어에서 의족 등의 보조기구로 영역을 넓히고 워크엔런의 문을 연 그는 지금도 유기견 보호소를 찾다니며, 몸이 불편한 강아지들에게 다리를 선물합니다. 이철 대표는 갈 곳 없고 아픈 강아지들을 위해서라도, 동물재활공학사가 더 많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반려동물 보조기구를 제작하는 곳이 국내에는 우리를 포함해 딱 세 곳이 있습니다. 보조기구를 만드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지요.”

오늘을 사는 반려동물들의 아픔

워크엔런을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는 고작 한두 살 먹은 어린 강아지들도 많습니다. 흔히 다리가 불편한 반려견이라고 하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고령이 아닐까 짐작하지만, 이철 대표는 나이보다 환경이 장애를 부르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너무 미끄러워요. 아이들이 발 디디는 곳마다 매끈하죠. 성장기의 강아지들은 미끄러지며 살짝만 삐끗해도 관절이나 뼈를 다칩니다. 소파에서 풀쩍 뛰어내리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요. 흙을 밟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과 함께 살면서 생긴 아픔이에요.”



도자기를 빚는 장인처럼

걷지 못하는 반려견이 워크엔런에 오면 이철 대표는 우선, 그 아이가 움직이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이때, 동물병원의 진단서나 엑스레이 사진 등이 있으면 말 못하는 강아지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진단 후에는 강아지의 다리 본을 뜨고 의족 주재료인 PP(Poly Propylene)를 녹여 모양을 만들어 조립합니다. 칼과 불을 다루며 의족을 만드는 그의 모습은 도공 장인과도 닮아 있습니다.

“도자기를 빚고 공들여 다듬는 도공처럼, 작품에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해요. 이쯤이면 되겠지 하고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 하면 안 됩니다. 제작물을 만져보고 입혀보고 착용한 모습을 거듭 확인하며 다듬고 조율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한 아이들에게 짐만 얹어주게 될 뿐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도전가는 언제든 환영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물재활의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대학이 없습니다. 몇몇 사설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철 대표는 교육기관을 고를 때 신중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격 검증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지 교육이 체계적이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알아서, 찾아서 공부해야 하기에 도전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도전가들이 꾸준히 늘어난다면 점차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이철 대표는 낙관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오늘도 두 팔 벌려 기다립니다. 반려동물에게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줄 멋진 후배들을 말입니다.



동물재활공학사 도전 체크리스트

- 강아지나 고양이 등 동물을 사랑한다.
- 무언가 직접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편이다.
- 관찰력이 좋다.
- 재활의학 또는 의족, 의수 관련 공부를 했다.
- 수의학 또는 동물행동학을 공부했다.

SOS 고민 상담소

글 우재원 노무사(자원노동법률사무소)

**Q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누구라도 상급자나 사내 고충처리기관에 보고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2차적으로 노동위원회·지방고용노동관서·국가인권위원회·검찰·법원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해치고 심각한 육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이를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때문에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문제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성희롱 관련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곧바로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동법 제14조 제2항).
- ② 조사 기간에도 피해 근로자를 최대한 배려하며,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동법 제14조 제4항).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도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동법 제14조 제5항).
- ③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동법 제14조 제6항),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동법 제14조 제7항).

사업주가 위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부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37조 제2항 및 제39조 제2항).

만약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은커녕,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야기되는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해당 기관은 회사에 원직 복직이나 시정 조치를 명하고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위자나 책임자에 대한 사내 조치를 명하고 손해배상과 교육수강 등을 권고합니다. 단순한 성희롱의 수준을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소나 고발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행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매우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조직의 따가운 시선이나 인사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관과 제도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든든한 응원군이 있으니 용기 있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Q 직장 건강검진 결과지를 회사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가뜰이나 혈압이 높게 나와서 걱정인데, 사내에서 불이익은 없을까요?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사는 건강검진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구체적인 결과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회사 보관용 결과표는 별도의 서식을 사용합니다(동 규칙 제105조 제3항).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개인용 검진결과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3조) 근로자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 외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고용관계법령에서는 많은 차별금지 규정이 있지만,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서 '신체 조건이나 병력 등을 이유로 취업 기회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외에는 구체적으로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자 개인의 건강유지나 다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감염병이나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해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다만 건강을 회복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이러한 조치는 객관적인 의사의 진단에 따

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이라 보기 어렵겠지요.

하지만 건강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완쾌가 아니라도 해도 업무 수행에 특별히 지장이 없다면 원직 복직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후에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동료들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서울행법 2005구합 715).

직장 건강검진은 근로자의 질병 또는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근로자 건강의 보호·유지가 주된 목적입니다. 불이익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살펴보고 관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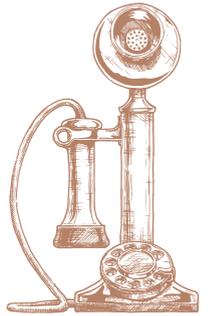
수화기 너머의 인연을 연결하는 사람들

전화교환수

자석식 단식교환기의 탄생은 마주 보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줬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이야기가 가능하다니 당시로서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마주 보지 않아도 소통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전화교환수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1902년 처음 등장한 전화교환수들은 목소리와 목소리를 이어주며 시대의 인연을 연결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글 이유정

작은 등에 노란불이 켜지고 불이 켜지는 대로 교환수는 잭싸게 [코오드]로 받아 그가 원하는 번호로 선을 이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 분 동안에 많을 때는 오, 육십 통화를 교환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밝은 청각과 곱고 선명한 음성과 재빠른 손씨가 필요하다. — <동아일보> 1958년 12월 11일



전화기, 소통의 시대를 열다

1896년 10월, 덕수궁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궁중에 3대, 각부에 7대를 비롯해 평양과 인천에 2대까지 모두 12개의 전화기가 놓이며 소통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직통으로 걸리는 통화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석식 단식교환기였기 때문에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수화기를 들면 회선에서 전류가 흘러 교환대에 설치된 램프에 불이 들어와 전화교환원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통화가 이뤄졌지요. 전화를 걸기 위해 수화기를 들면 몇 번인지 묻는 전화교환원들의 목소리가 제일 먼저 들렸습니다.

신문물과 함께 등장한 유망직업

전화기라는 신문물과 함께 등장한 전화교환원은 당시 꿈의 직업으로 손꼽혔다고 합니다. 중앙전화국에 설치된 교환양성소에서 3개월 무료 수련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적임증을 받으면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는데 교환양성소에 들어가기에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여성이어야 하고 청각과 음성과 화술과 건강 부문에 모두 합격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발되는 과정의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응시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니 당시 유망직업으로 불리기에 충분했을 거라 짐작됩니다.

신식 전화기의 등장과 함께 역사의 뒤편길로

이렇게 인기 높은 유망직종이었지만 업무 환경은 선진적이지 못했습니다. 전화교환원 한 사람당 평균 250~300회, 분당 4~5회 전화선을 끊었다가 이어야 하는 고된 작업이 종일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설비 부족으로 말미암은 연결 지연에 역정을 내는 사람은 물론 제대로 된 전화번호를 말하지 않고 지역과 이름만 대던 사람까지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적 역량은 점차 향상되어 전화번호를 외우는 능력 또한 전화선을 꽃는 손놀림만큼 능수능란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화 이용자 수가 늘어났고 1971년에 이르러서는 전화교환원 중개 없이 가입자가 직접 다이얼을 돌려 전화를 걸 수 있는 장거리 자동 전화가 처음으로 개통됐습니다. 자연스레 전화교환원이 하던 일은 자동 시스템으로 바뀌어 업무적 수요도 줄어들었지요. 돌아보면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했던 그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발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빛나는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1902년

등장

서울과 인천 간 전화 개통으로 전화교환원 탄생

1971년

하향길

자동교환기 도입으로 점차 사라짐

흩날리는 벚꽃처럼 즐기는 이 계절의 특권

흐드러지게 핀 꽃들이 비로소 봄이 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퇴근 길에 보는 벚꽃도 아름답지만, 시간을 내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더 진한 봄의 향기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흩날리는 벚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글 이유정



페스티벌

만개한 벚꽃과 함께



그린플러그드 2019

VS

청춘페스티벌



그린플러그드 2019 서울 난지한강공원(5/18~19)
청춘페스티벌 서울 난지한강공원(5/11~12)

돗자리와 만화책,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 마치 피크닉처럼 즐기는 음악 페스티벌은 봄날의 특권입니다. 따뜻한 봄볕과 함께하는 음악 소풍, 행복한 음악 축제를 만들어온 '그린플러그드'가 올해 10주년을 맞아 god, 국카스텐, NELL 등 더욱 탄탄한 라인업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린플러그드 페스티벌이 음악을 주름잡고 있다면, 셀럽들의 토크와 공연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청춘페스티벌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청춘페스티벌은 오직 청춘을 위해 용기를 듬뿍 불어넣어 주어 이미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만개한 벚꽃과 함께 귀도 눈도, 마음도 즐길 준비가 되셨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전시

벚꽃 감성 가득히



데이비드 호크니

VS

그리는 것보다 멋진 건 없어



데이비드 호크니 展 서울시립미술관(~8/4)
그리는 것보다 멋진 건 없어 展 디뮤지엄(~9/1)

벚꽃길을 지나 전시를 보러 간다면 이보다 더 설렘 수는 없겠죠? 그 설렘을 극대화해줄 전시를 소개합니다. 현존하는 작가 중 최고가의 작품으로 꼽히는 '데이비드 호크니 展'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번 전시는 아시아 최초 대규모 개인전이며 가로 12m, 세로 4.5m에 달하는 장엄한 크기의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국 아티스트 16명이 생각하는 '그림'에 대한 그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리는 것보다 멋진 건 없어 展'도 강력 추천합니다. 전문 조향사들이 그림과 어울리는 향을 제작해 공간을 가득 채웠다고 하니 오감을 활짝 열고 전시를 즐겨보길 권합니다.

음악

벚꽃길과 어울리는 BGM



봄치녀

VS

봄이 좋냐?



벚꽃길을 걸으며 듣기 좋은 노래는 많습니다. 으레 봄이 오면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이 대표주자이지요. 그런데 색다른 벚꽃길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노래 두 곡을 추천합니다. 심상찮은 도입부에서 이게 봄노래가 맞나 싶은 의문이 드는 노래, 선우정아의 '봄치녀'는 흥난파의 가곡 '봄치녀' 한 구절을 인용해 2015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넘실대는 베이스 선율이 봄날의 들뜬 발걸음을 떠오르게 하며 덩달아 마음까지 들뜨게 만들죠. 반면, 봄날의 연인들을 시기하는 10cm의 '봄이 좋냐?'는 발칙하지만 귀여운 가사가 돋보입니다. 늘 똑같은 벚꽃길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조금 특별한 노래들에 귀 기울여주세요.

현대인의 만성 질병 VDT 증후군에 대해



VDT(Video Display Terminals) 증후군이란 VDT 즉 컴퓨터 등의 영상단말기를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골격계 증상, 눈의 피로, 정신신경계 증상 등을 통틀어 말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컴퓨터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VDT 증후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 박신구 인하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VDT 증후군의 세 가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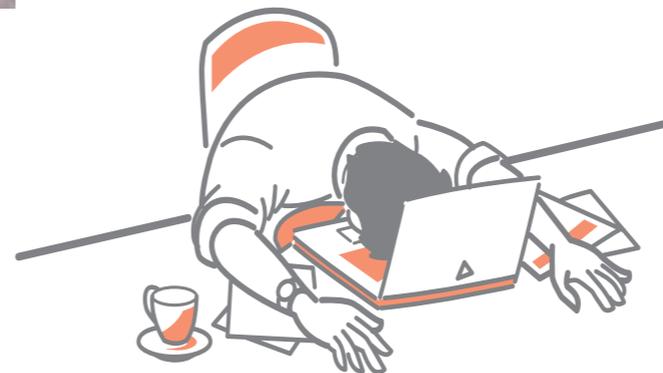
VDT 증후군의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로는 근골격계 증상으로 일자목과 거북목을 비롯해 요통, 손목 신경의 눌림에 의해 생기는 수근관 증후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과 관련된 증상으로 눈이 뻑뻑해지고 충혈, 가려움증, 통증 등이 발생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증상들은 안구건조증에서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사람은 1분에 15~22회 정도 눈을 깜박이지만, 영상단말기를 보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깜박임 반사가 1분당 7회 미만으로 감소되어 눈물층이 파괴되면서 각막이 자극되어 안구건조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은 영상단말기 화면에 노출되는 시간과 면적에 의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을 완화하려면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박여야 하고, 화면을 정면으로 보거나 위로 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화면을 정면으로 보면 많은 양의 빛 에너지를 접하게 되고, 위로 보면 눈을 크게 뜨게 되므로 안구건조가 더 쉽게 일어납니다. 또한 사무실 안의 습도가 낮아도 수분 증발량이 증가하게 되어 안구건조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신경계 증상으로 기상 시의 피로감은 물론 근무 내내 느끼는 피로감, 멍해짐, 권태감, 두통 등이 있습니다.

멀리하기엔 너무 가까운 영상단말기

VDT 증후군의 예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하지만 지키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컴퓨터 등의 영상단말기의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 시간 중의 휴식 시간을 갖길 권합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할 때도 한 번의 긴 휴식보다는 여러 번의 짧은 휴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0분 작업 후에 10분 휴식보다 25분 작업 후에 5분 휴식을 갖는 것 혹은 10분 작업 후에 1분 휴식을 갖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 시간 동안 근육을 이완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시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올바른 자세도 중요합니다. 컴퓨터의 경우, 화면 상단과 눈높이가 일치할 정도로 하고 화면과 눈 사이의 거리가 40cm 이상 되도록 합니다. 지금 자신의 컴퓨터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당장 살펴보길 권합니다. 또한 키보드를 사용할 때는 손목이 꺾이지 않고 손등과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손목 받침대를 사용하면 이러한 모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의자에 앉을 때에도 끝에 살짝 걸터앉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앉아 몸이 등받이에 충분히 지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의 습도도 VDT 증후군을 예방하는 척도가 됩니다. 보통 40~7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사무실 곳곳에 작은 화분을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녹색 식물은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도 영상단말기에 시달린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또한 스투키나 디펜바키아 등의 식물은 영상단말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어 더욱 유용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영상단말기 사용은 피하려면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달러를 벌기보다 1달러를 아껴라.”
 진정한 부는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작은 돈부터 아끼는 습관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아끼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짜다’와 ‘재테크’가 합쳐진 ‘짤테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짤테크 방법에 대해 알아보까요?

글 박채림

똑똑하게 아껴 쓰는 짤테크 전성시대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앱테크’

여기 진정한 ‘티끌 모아 태산’ 만드는 절약법이 있습니다. 바로 어플리케이션과 재테크를 합성해 만든 말인 ‘앱테크’인데요. 스마트폰에 각종 리워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거기서 제시하는 간단한 미션을 수행해 포인트나 현금을 받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잠금 화면을 해제할 때마다 나오는 광고를 보면 포인트를 주는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하루 걸음수를 측정해 포인트로 돌려주는 만보기 어플리케이션도 있지요. 또한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원하면 소액이지만 꾸준히 이용하면 어느새 제법 큰 돈이 되어 소소한 기쁨을 안겨준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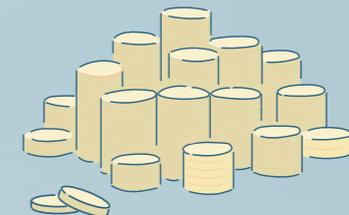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로 통장 관리하기

이제는 쓰지 않는 통장에 남은 수수료, 한두 번 저축하고 방치 중인 비상금 통장까지 어딘가에 잊어버리고 있는 숨겨진 돈이 있을지 모릅니다. 금융감독원의 ‘내 계좌 한눈에’는 잊고 있었던 내 명의 계좌의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PC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요.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고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고, 은행에 가지 않아도 비활동성 계좌는 손쉽게 해지할 수 있지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이체 계좌는 고정지출 계좌에 모두 묶고,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통장을 분류해보세요. 자신의 계좌를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면 자신의 지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잔돈 통장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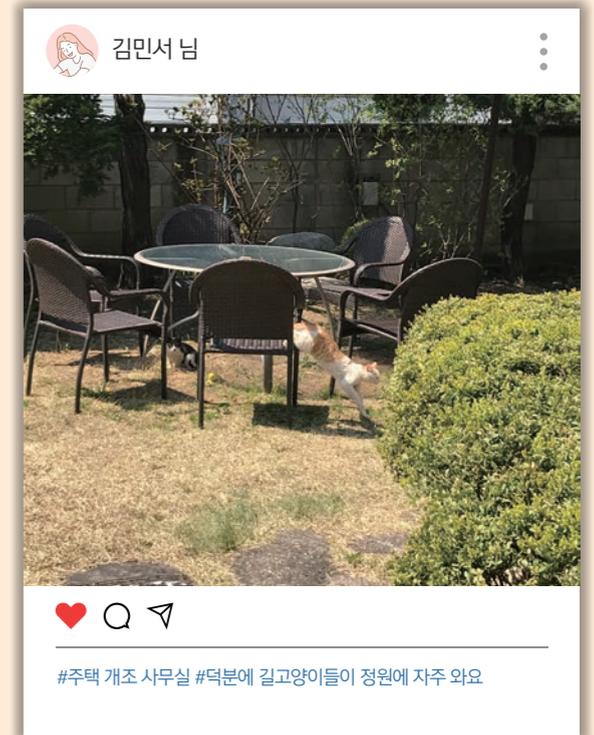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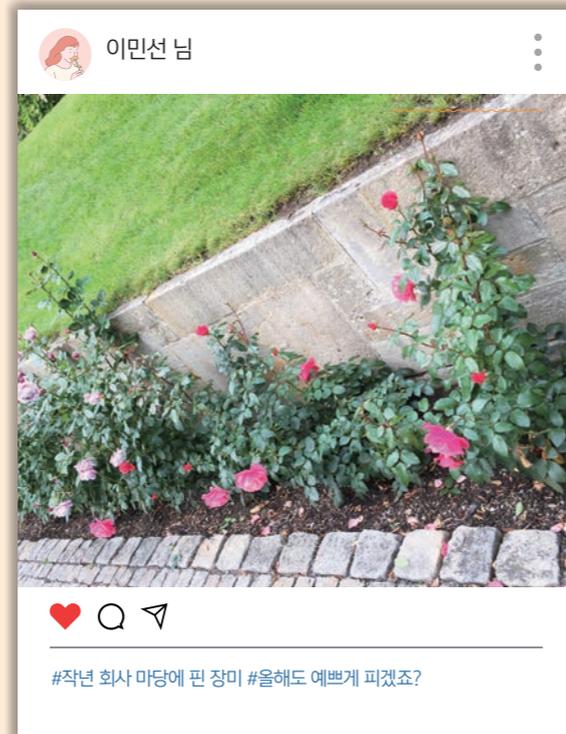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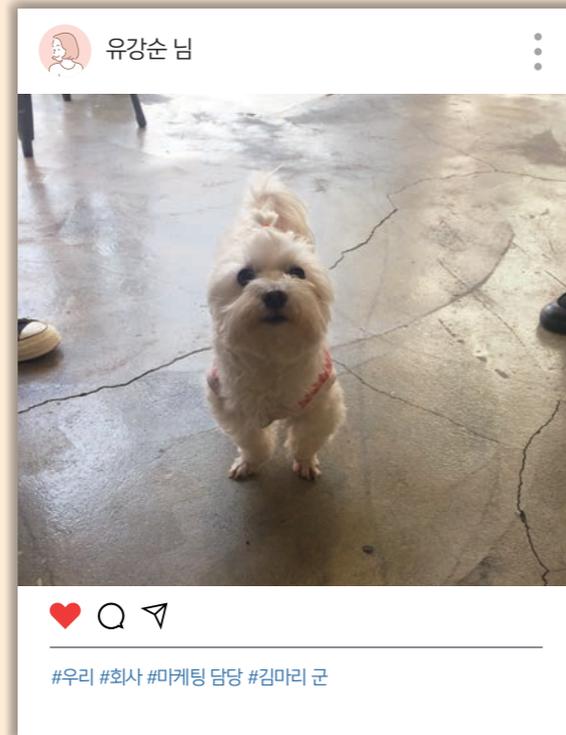
돈을 계산할 때 반올림해서 생각하거나, 만 원 단위 아래로 떨어지는 잔돈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투리 돈을 모아 나만의 저축 습관을 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모바일 통장을 개설해주세요. 그리고 100원에서 1,000원 단위의 잔돈을 생각날 때마다 ‘잔돈 통장’에 이체해주면 됩니다. ‘잔돈 통장’은 꼭 지속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잔돈들만 생각날 때마다 이체하는 겁니다. 1년은 지루하니 6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기간을 잡아두고 시간이 지난 후 잔액을 확인해보면 잔돈이 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일터에서 자라는 내 특별한 동료를 소개합니다



책상과 컴퓨터, 기계와 공구들이
가득한 회사에도 가만 보면
씩씩하게 자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내일> 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을 통해 사무실의
색다른 동료들을 만나봅니다.



5월호 주제

잠간의 휴식, 틈새에 마주한 창밖 풍경

컴퓨터 모니터를 비롯해, 작업 중 한 곳만 계속 보고 있노
라면 눈이 피곤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잠깐 창밖을 볼
까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창밖으로 어떤 풍경이 보이
나요?

참여 방법

- 1 5월호 내일스타그램 주제를 확인한다.
- 2 주제에 맞는 장면을 발견하면 찰카 사진을 찍는다.
- 3 촬영한 사진을 아래 이메일로 짧은 사연과 함께 전송한다. moel2019@naver.com
- 4 참여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이메일에 반드시 기재한다.

* 멋진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 5명을 선발해 다음호 지면에 공
개하고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케이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열어갑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는 UN의 전문기구입니다.
이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이 비준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8개 ILO 핵심협약은 187개 ILO 회원국 중 144개국이 모두 비준하였습니다.

ILO 핵심협약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2019년 제14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2019. 4. 22(월) - 23(화)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

무대행사

- [공연]
- 펜타곤 (1일차 4/22)
- CLC (2일차 4/23)

[이벤트]

- 참여기업 데모데이
- 장애인식개선퀴즈
- 장애인식개선 토크쇼

4월행사

- 4.15(월) 13:00 | EDI 정책토론회 (상공회의소)
- 4.17(수) 11:00 | 장애인고용촉진대회 (63컨벤션센터)
- 4.27(토) | 수도권 발달장애인기능 경기대회 (경기도 고양고등학교)

체험행사

- [체험부스]
- VR 레저스포츠 체험
- 오감만족 공예체험
- BF 영화 상영

[이벤트]

- 스태프캘리 이벤트
- 포토존 이벤트



사전신청은 www.atdfair.co.kr 에서 가능합니다.

Quiz

3월호 퀴즈 정답 시간선택제

3월호 퀴즈 정답 당첨자

- 김유미(경기 평택시)
- 김태인(강원 춘천시)
- 노경화(서울 중랑구)
- 장순자(인천 중구)
- 장은영(서울 송파구)
- 전현정(대전 유성구)
- 정창재(경기 용인시)
- 조 석(경기 의정부시)
- 주현우(부산 서구)
- 최영수(대구 수성구)

월간 <내일> 4월호 퀴즈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주는 초과 고용 인원 1인당 30~6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 제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힌트 1. □□□ □□□□□ 8글자입니다.
- 힌트 2. 지금 바로 13페이지를 열어보실까요?

퀴즈 정답을 엽서에 적어 매월 20일까지 <내일>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독자와 함께 만드는 월간 <내일>

여러분의 의견을 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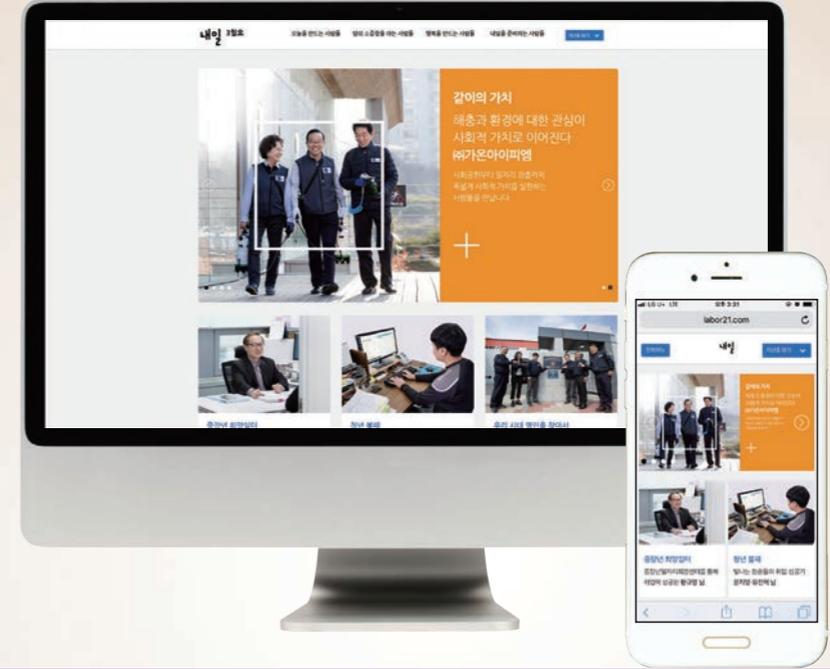
월간 <내일>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알고 싶은 정책, 읽고 좋았던 기사, 또는 개선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 등 자유로운 의견을 엽서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월간 <내일>을 더욱 알차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새로운 독자를 환영합니다

회사나 기관에서 월간 <내일>을 우편히 만나셨다면, 원하시는 주소로 매월 편하게 받아보세요. 아래 1번과 2번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구독 신청은 다음 달부터 반영돼 매달 우편으로 월간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 1. 엽서에 정기구독 신청을 표시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 2. 웹진(www.labor21.com)에 접속하여 신청해주세요.
- * 주소를 적어 주실 때, 빌라 또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모두 적어주세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월간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www.labor21.com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월간 <내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검색창에 '월간 내일'을 입력하거나 'www.labor21.com'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월간 내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QR코드를 인식해서 모바일 웹진 페이지에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